

 제주발전연구원	보 도 자 료 2010년 1월 28일(목요일)	담당	산업경제팀
		연락	강 승 진 연구위원 726-6147, 011-639-6391

제주지역 농산물, 세계 10대 건강식품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마케팅 필요

- 제주발전연구원 “건강식품과 연계한 제주지역농산물 클러스터 구축 방안”서 제언
- 미국 시사주간지인 <타임>이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녹차, 견과류, 브로콜리, 시금치, 마늘, 토마토, 귀리, 머루, 적포도주, 연어)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5가지, 녹차, 땅콩(견과류), 브로콜리, 시금치, 마늘에 대한 지역별 재배 단지화 및 통합브랜드화 등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연계한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다.
- 단기적으로는 시범적 단지(브로콜리, 녹차, 마늘 주산지인 애월읍과 안덕면·대정읍 지역 중심으로)를 조성하되 연구·제조 기능 등이 들어서는 핵심권역과 건강식품 주산지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산물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중·장기적으로는 10대 건강식품 클러스터를 토대로 농산물 대체 식품은 물론 감귤 등 특산품과 수산물까지 아우르는 제주지역 주요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제주형 식품산업인 (가칭)‘클러스터 2.0’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에서도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세계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고, 소비측면에서도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향상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건강식품 산업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식품산업의 기반이 미약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대규모 예산을 초기에 투입하는 방식보다는 제주대학이나 농업기술원 등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식품연구 및 식품산업의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연구기능의 향상을 기초로 하는 지역적 식품산업 클러스터 발전전략이 필요함.
- (가칭)제주건강식품연구소의 설립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곳에서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10대 건강식품에 대한 효능과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제품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제주의 건강식품 산업화 전략의 기초를 닦아 나가야 함.
- 아울러 제주를 ‘건강의 섬’, ‘생명의 섬’으로 대외에 각인시키는 동시에 생산된 건강식품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적절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됨. 특히 ‘장수의 섬’과 연계 가능한 음식문화, 청정자연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고객옹호마케팅이 필요함.
- 제주지역에서의 건강식품산업 육성은 1차 산업을 6차 산업으로 고부가가치화 하는 기본적 기능에 더하여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결국 ‘제주 섬’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음.